

설 앞두고 제주산 만감류 가격 회복세

도, 1월 대비 최대 17% 오르는 등 안정 국면 전환 분석
무관세 만다린 유입 속 수급 관리·소비 촉진 정책 작용
레드향 등 3품종 판매 규모도 지난 8일 기준 5000t 넘어

제주 만감류 가격이 2월 들어 뚜렷한 회복세라는 분석이다. 무관세 미국산 감귤 수입에 따른 제주 만감류 가격 하락 등의 우려 속에 수급·유통 관리 대책과 소비 촉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요 만감류의 3kg당 가격(10일 기준)은 한라봉 1만4260원, 천혜향 1만6651원, 레드향 1만9092원으로 전월 대비 최대 17%까지 상승했다. 1월에는 한라봉 1만2281원, 천혜향 1만4271원, 레드향 1만6815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출하 초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거래도 다소 위축됐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 대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2월 들어선 출하 물량이 조절되면서 가격이 안정 국

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주시 아라동 소재 한라봉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 현장을 둘러보고 만감류 재배 농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청취한 오영훈 지사는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물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출하 조절, 유통 관리, 소비 촉진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주 만감류는 미국산 만다린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만큼 농가들도 자신감을 갖고 고품질 출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기준 판매된 2025년산 제주 만감류는 총 5031t(415억원 규모)에 이른다. 품목별 유통량은 레드향 2568t, 천혜향 1408t, 한라봉 1055t으로 집계됐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는



2025년산 만감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 출하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11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 제공

수급 안정 사업을 통해 출하 집중 시기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관리하고 판촉 지원을 추진한 성과라고 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비대면 채널까지 물량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출하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시장 내 수급 균형 유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농가들의 노력이 더해졌

다. 수입산 만다린 유입 확대에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쳐 고품질 위주의 만감류 제품을 출하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고광덕 센터장은 “제주산 만감류가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농가의 철저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 출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 통할까

서귀포시 올해 중앙로 1.3km 구간 250그루 대상 시범 ‘큐알코드’로 관리… 병해충·고사목 신고도 신속 가능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가로수 관리에 나선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인데, 병해충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가로수를 발견했을 때 시민들이 바로 행정에 알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존 가로수 실명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는 각 가

로수에 고유번호와 함께 큐알(QR)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로수 실명제가 단순히 표찰을 부착하거나 일회성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고안한 방식이다. 가로수마다 하단에 놓이는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수종부터 식재 연도, 관리 이력, 점검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병해충 피해나 고사목 발생처럼 가로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각 가로수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가로수에 대한 건의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며 “시민들이 병충해가 있다고 신고하면 행정이 바로 확인해 조치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 운영 구간은 서귀포시 중앙로 1.3km로, 이곳에 심어진 후박나무 250그루가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이 구간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위치한 상가 100여 곳의 상인을 대상으로 관리 주체로 모집할 계획이다. 가로수 관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관리 주체로 참여하는 상인들에겐 가로화단에 원하는 꽃을 심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가로수에 대한 민원 처리가 신속해지고 도시숲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도, 올해 사업비 11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자동차 분야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총 11억 2000만원(국비 50%)을 투입한다. 자동차 분야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약 20% 늘어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도민들의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을 경제적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는 에너지 분야에 9억 6000만원, 자동차 분야에 1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분야는 절감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2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동차 분야는 12인승 이하 비상 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주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3359대)보다 580여 대 증가한 3942대를 모집한다. 진선희기자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확대 시행
도, 제주시 동지역 전체·서귀포 일부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감축 일상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주시 모든 동지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 중 하나인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노형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로 음식이 배달되고 식사 후 큐알(QR) 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노동자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다회용기 사업 확대는 배달 서비스가 음식점 소재지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 했다. 시범 지역과 인접한 동을 중

심으로 차례로 확대할 예정인데 ▶ 2월=제주시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 3월=제주대 아라캠퍼스, 일도동, 이도동, 건입동, 삼도동 ▶ 4월=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 5월=서귀포시 중문동, 예래동 ▶ 6월=대륜동, 대천동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참여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탑나는 전 1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올해부터는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해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제주시 제공

노형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제주시, 3월 말까지 사업 완료
학생 보호하는 완충공간 역할

분리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주변이 ‘자녀 안심그린숲’으로 조성된다.

제주시는 오는 3월 말까지 노형초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자녀안심그린숲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완충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보행로와 차도를 자연스레

분리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 구간인 왕벚나무 가로수 사이 녹지 공간을 정비한다. 이곳에 무궁화, 황금사철나무, 순비기나무 등을 심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앞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등 통학로 안전성을 높인다.

제주시는 2024년부터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봉개초등학교와 아라초, 광금초등학교 조성됐다.

김지은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율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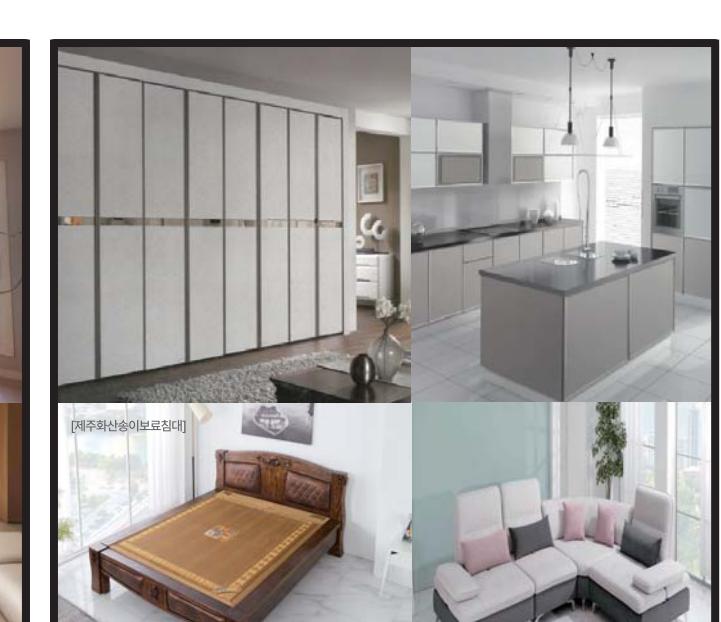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